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되기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우리의 구세주이자 신랑 되신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닦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 버림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선한 마음이 되야 한다. 또한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결여 부분을 신속히 채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때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벼이 여기고 지나치기 쉬운 기본 예절을 점검해 보자.

1

대화예절 지키기

- 전화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기 용건만 얘기하지 않나요?
-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인상을 쓰거나, 머리 혹은 얼굴에 자주 손이 가는 편인가요?
- 지나치게 큰 소리나 흥분된 어조로 말하지 않나요?
- 질책하거나 가르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나요?
-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화하지 않나요?
- 대화 중 습관적으로 상대를 치거나 손가락질 하지는 않나요?
-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말꼬리를 흐리지 않나요?
-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지나치게 말이 빠르지 않나요?
- 대화 중 상대를 응시하지 못하고 시선이 산만한 편은 아닌가요?
- 관심 없어 하는 상대를 붙들고 지루하게 말을 이어 가지 않나요?
- 대화 도중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나요?
- 동문서답을 하지 않나요?
- 습관적으로 반말을 사용하거나 격에 맞지 않는 경어를 쓰지 않나요?
- 대화 도중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전화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나요?

2

생활예절 지키기

- 설거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 두지 않나요?
- 문을 여닫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문을 열어 놓고 나가지 않나요?
- 문을 발로 닫는 일은 없나요?
- 옷을 갈아입은 후 아무 데나 쌓아 놓지 않나요?
- 계절별로 옷을 구분해 보관하지 않고 뒤섞여 놓지는 않나요?
- 욕실 사용 후 주변에 물이 흥건히 있지는 않나요?
- 머리를 손질한 후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처리하나요?
- 강한 향수나 화장품 냄새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게 한 적은 없나요?
-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나요?
- 앉은 자세, 걸음걸이가 반듯한가요?
- 요란하게 걷거나 신발을 끌지 않나요?
- 침착하지 못해 곧잘 사물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나요?
-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두나요?
- 물건을 거칠게 다루어 파손하는 일은 없나요?
- 소지품을 자주 분실하지 않나요?
-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없나요?
- 예고 없이 남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는 일은 없나요?
- 남의 집 방문 시 허락 없이 장롱 문을 열어보거나 이방 저방 둘러보지 않나요?

3

식사예절 지키기

- 어른이 먼저 수저를 잡은 후에 수저를 드나요?
- 음식(특히 국물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나요?
- 음식물을 입가에 묻히거나 주변에 떨어뜨리지 않나요?
- 개인 그릇이라고 지저분하게 사용하지 않나요?
- 음식물을 입안에 넣은 채 대화하다가 입 밖으로 음식물이 튈 적은 없나요?
- 다른 사람보다 먹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지 않나요?
- 수저에 음식물을 묻힌 채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나요?
- 맛있는 음식만 골라먹거나 반찬을 뒤적거리지 않나요?
- 격식을 차려야 할 식사 자리에서 맨발을 보인 적은 없나요?
- 식사 도중 상대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어난 적이 있나요?

4

인사 및 기타예절 지키기

- 주변 사람들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편인가요?
- 인사할 때 웅얼거리거나 고개만 까딱하지 않나요?
-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며 인사하지 않나요?
- 조용한 분위기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인사하는 일은 없나요?
- 여러 날 전에 한 약속을 직전에 취소한 경우는 없나요?
- 여행이나 출장 준비를 미리 하지 않고 촉박하게 짐을 싸지 않나요?
- 오늘 할 일을 다음날로 미루는 경우는 없나요?

